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'유럽발 재정위기 영향 제한적일 것'

-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함.
 - 시라가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가급락 및 환율급등과 같은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말함.
 - 그러나 현재 유럽 각국의 조치들이 금융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, 단기금융시장과 기업어음(CP)과 같은 회사채시장이 비교적 안정세에 있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.
- 이와 관련해 일본은행은 최근 발표한 5월 금융경제 월별보고서에서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전망을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함.
 -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, 수출 및 생산활동 증가로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등 기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내수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또한 지난달 삼입되었던 '국내 민간수요의 자율적 회복 능력이 약하다'라는 표현도 삭제하며 2개월 연속 경기전망을 상향 조정함.
 - 경기전망에 '회복'이라는 문구가 삼입된 것은 2003년 10월 이후 6년 반 만에 일본은행은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.
 - 한편, 설비투자 현황에 대해 지난달 '침체가 진정되고 있음'에서 '서서히 살아나고 있음'으로 상향했으며, 주택투자 역시 '부진이 심각한 상황은 아님'이라고 수정하는 등 일본은행은 경제의 회복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.

(FujiSankei Business I, 로이터, 5/25)